

벌거숭이 '음악님'

유영희 | 작곡가, 음악평론가

기성세대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들의 열기 양성을 정직한 작품과 연주로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NONG 프로젝트 2005>가 그것으로 2003년 서울 소재 세 대학교 작곡과의 교류행사로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행사규모가 확대되어 국내 4개의 대학과 동경예술대학교, 상해음악학원, 대북국립음악원, 그리고 플로리다와 튜레인대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임금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옷'을 입었다고 믿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옷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많은 이들이 '임금님은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임금님의 옷이 이름답기 짝이 없고, 이렇게 훌륭한 옷은 이전에 본 일이 없었다고 입을 모아 칭송한다. 처음에는 미심쩍었던 임금님까지도 모두의 칭찬에 우쭐해져 급기야 시내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는데, 한 정직한 소년이 외치는 "임금님은 벌거숭이여"라는 한마디에 모든 해프닝은 일거에 끝나게 된다.

필자가 현대음악의 연주를 보고 들으면서 가끔 떠올리는 안테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의 내용이다. 가끔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리허설에서 농담조로 내뱉는 '현대음악은 틀려도 모르잖아'라는 말을 들으면 이 이야기가 조건반사처럼 떠오르곤 한다. 서양음악이 유입된 역사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온 한국의 현대음악이 가진 쓸쓸한 단면이다. TV광고에서는 '한국은 뭐든지 빠르니 앞으로의 성장도 매우 빠를 것'이라는 카피가 수시로 흐르고 있다. 맞다. 한국인의 습득 능력은 진정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고 앞으로도 맹렬히 전진해 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서두르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과거 국지적이었던 우리의 음악활동 무대가 이제 세계로 발을 뻗어 가면서 '작품' 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연주의 끝에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만이 남아 있는 것도 일련의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증상이다. 서너 번은 기본이고 많으면 예닐곱 번이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커튼콜도 이 증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무대에 대한 박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술한 작품과 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칭찬과 그것에 대한 당연한 듯한

답례의 자세는 누가 보기에든 민망한 것이다. 작곡가나 연주자는 이러한 맥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연주나 작품이 '훌륭한 것'이라고 믿게 되며, 듣는 사람들의 태반은 '내가 잘 모르니까' 라고 치부하게도 되는 것이다.

정직한 소년의 외침 - 그들의 축제 <NONG 프로젝트 2005>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경종을 울린 정직한 소년이 우리에게도 있다. 기성세대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기 왕성을 '정직한 작품'으로, '정직한 연주'로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 소리 높여 외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음악으로 승부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끼를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이 지난달 펼쳐졌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NONG 프로젝트 2005>가 그것으로 2003년 서울 소재 세 대학교 작곡과의 교류행사로 시작해 어언 세 번째 행사를 치러냈다. 우리 젊은이들의 선전(善戰)은 이 행사의 규모를 점점 더 확대시켜 올해에는 국내 4개의 대학과 동경예술대학교, 상해음악학원, 대북국립음악원, 그리고 플로리다대학교와 튜레인대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각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 작곡가가 선발되어 참여한 것은 행사에서 연주된 작품의 질을 높이는데 더할 수 없이 적절했으며, 발표된 작품은 기성 작곡가의 어느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은 학생들만의 연주로 무대에 올려졌는데, 작품의 해석능력과 더불어 연주의 수준이나 연습에 임하는 태도 어느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다. 연주 당일이나 그 전날 도착한 외국의 게스트들도 놀랄 만큼 잘 준비된 젊은이들의 페스티벌은 그간 치러졌던 어느 국제적 행사 못지않게 '성도(成度)' 높은 것이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작품들은 저마다 '음(音)'에 대한 탐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의 작품에 관한 성격적·구조적 인식이 뚜렷했다. 연주를 맡은 학생들 역시 부단한 연습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온 결과 작곡가가 원하는 상태의 음들을 구현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래는 '당연한 일'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정말 '별(別)일'이 아닐 수 없다.

<NONG 프로젝트 2005>에서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파안 영희 교수를 초청해 특별 연주회와 강연회를 가지기도 했다. 1994년 당시, 전 독일어권 나라에서 첫 번째 여성 교수로 임명이 되어 현재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그녀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런가하면 동경예술대학교의 교수이자 부총장인 작곡가 테루유키 노다 교수도 강연과 연주의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과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연니홀 동안 젊은 작곡가들은 자신의 개성을 한껏 발산하고, 새로운 것들을 흡인(吸引)하면서 보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연주회'에서 의미 없는 박수를 쳐대던 그들의 모습이 아남에 분명했다.

'적응'에 관한 단상(斷想)

그러나 우리 어른들에게도 저토록 푸른 젊은 시절의 기백이 필경 있었을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제 자리에 적응하도록 종용하는 힘을 지닌 듯 하다. 남에게 없는 나만의 언어를 찾아 헤매는 불면의 밤들이 있었을 진데 그동안 길러진 '적응력'은 지꾸만 편한 길로 음악가들을 인도하려 한다. 세상 또한 어느덧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와야 교향곡 하나를 듣던 시대는 역사의 저편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봄을 이루고 있



콘베르숨 무지쿰의 내한공연 리허설 장면

다. - 이것은 어쩌면 기현상(奇現象)일 수도 있다. -

그런가하면 작곡가는 자꾸 작품에 부연 설명을 하려 하고 음악 이외의 요소와 결합 시키는 것을 즐겨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기호와 시류(時流)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덧 '내 안에 끓는 무엇'을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에의 길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생계유지'를 넘어가는 차원의 소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질을 잃고 회류(回流)하기 시작한다. 팔리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얼굴에 회칠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탈을 쓰는 것을 마다 않는다. 팔리는 음반만을 만들기 위해 귀에 익숙한, 혹은 듣기 쉬운 음악만을 실을 수 없는 것처럼, 소수의 애호가를 위해 우리는 좀 더 정통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격연주단체 콘베르숨 무지쿰(Conversum Musicum)이 내한했을 때, 리더인 첼발리스트 켄조 다

케히사의 강연에서 통역을 맡은 일이 있다. 정격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객석은 만원이었다. 강연의 내용 중에 첼발로 등의 고악기들을 일찍이 일본은 자체 제작했고 지금은 유럽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질의 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 잠시 어떻게 통역을 해야 할 지 난감했었다. 질문의 내용은 "제작 초기에는 악기를 만드는 것이 미숙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돈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계속 악기를 만들었지요?"라는 내용이다. 켄조 씨는 "그 악기들은 장인들에게는 하나의 작품이었을 것이며,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만들지 않는 예술가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대목에서 필자는 무분별한 적용과 예술, 그 본질에의 심각한 훼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벌거숭이 '음악님' - 옷을 입으세요

옷을 벗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만 했었다면 없어도 될 일들이 더 큰 수치심으로 이어지기 전에 옷을 입자. 어설플 장막 뒤로 숨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소박하지만 진솔한 나만의 옷을 챙겨 입자. 아름답고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몸에 맞는, 내게 필요한 옷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노력한 이상의 과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입고 있지도 않은 옷에로의 황홀경으로 빠지게 한다. 정직한 소년이 모두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젊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에게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 🎭